



사랑흐름 상품 소개 및 콘텐츠 보급 제안서

사랑흐름은 관계를 번역합니다.

마음을 다섯 축으로 읽어 글로 옮기고, 그 글이 한 사람에게 건네집니다.

교육의 자리

사람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마음을 씁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언어는 따로 배웁니다.

사랑흐름은 참여자가 자기 관계를 **다섯 축**으로 들여다보고, 읽는 데서 나아가 **쓰고 건네는 데까지** 가도록 돕습니다. 관계를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번역**하는 자리입니다.

LFRI™ 관계 다섯 축

관심

ATTENTION

그 사람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연결

CONNECTION

닿아 있는
끈의 굵기

온기

WARMTH

주고받는
마음의 온도

표현

EXPRESSION

마음이 말로
나오는 정도

회복

RECOVERY

어긋난 자리를
되돌리는 힘

MBTI × LFRI — 두 겹으로 읽습니다

참여자는 **자기 유형**과 **그분의 유형**을 함께 고릅니다. 두 유형이 겹치는 자리에서 서로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가 풀립니다. 여기에 다섯 축의 흐름을 얹어 **지금 이 사이의 방향**을 짚어 드립니다.



나의 유형

열여섯 유형에서
나를 먼저 고릅니다



그분의 유형

떠올린 그 사람의
유형을 겹칩니다



관계 나침반

두 유형과 다섯 축이
만나 방향이 나옵니다

사랑흐름은 관계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 번역합니다.

참여자가 걷는 길

한 사람을 떠올리는 데서 시작해, 그 마음이 글이 되어 건네지고
끝내 살아온 이야기 한 편으로 남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 1**
한 사람을 정합니다
어머니 · 아버지 · 배우자 · 자녀 · 형제 · 친구 · 스승 · 나 자신 · 그리운 누구
- 2**
문항에 답합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를 다섯 축으로 짚어 갑니다
- 3**
여행지도를 받습니다
관계 유형과 다섯 축의 흐름, 가장 오래 머문 마음이 한 장에
- 4**
편지를 씁니다
다섯 물음을 따라가면 마음이 한 통의 편지가 됩니다
- 5**
기록으로 남깁니다
일곱 테마를 따라 살아온 이야기가 한 편의 글로

첫째 · 마음 여행지도

나를 먼저 만나고, 그분과 함께 떠납니다. 답을 마치면 참여자마다 다른 한 장이 나옵니다.

- 
관계 유형
지금 이 사이가 어떤 결로 흐르는지 한 이름으로
- 
다섯 축의 흐름
관심 · 연결 · 온기 · 표현 · 회복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 
가장 오래 머문 마음
오늘 여행에서 참여자가 가장 오래 머문 자리
- 
관계흐름증명서
여권번호가 새겨진 증서. 참여를 증명하는 자리

두 유형이 겹치는 자리

열여섯 유형에는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신중한 관리자, 따뜻한 수호자, 열정적 중재자처럼.

내 이름과 그분의 이름이 나란히 놓이면 그동안 어긋났던 자리가 보입니다.

같은 말을 두고도 한 사람은 마음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은 이치를 먼저 봅니다. 한 사람은 밖으로 꺼내 풀고 다른 사람은 안에서 삭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였다는 것**을 참여자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마음이, 하나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둘째 · 마음 여행편지

지도를 펼친 그 마음 그대로, 다섯 물음을 따라가면
참여자의 문장이 한 통의 편지가 됩니다.

하나 그분을 떠올리면, 그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둘 그 말을, 왜 그때는 끝내 마음에만 두셨을까요?

셋 그때와 지금, 그분을 향한 마음에 달라진 것이 있나요?

넷 이번에는, 어떤 마음만큼은 꼭 전하고 싶으신가요?

다섯 그분이 이 편지를 읽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 좋겠어요?

셋째 · 한 편의 기록

여섯 시절 가운데 마음이 먼저 가는 곳부터 엮니다.
간직해 온 사진도 글과 나란히 담깁니다.

유년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절

학창 시절

배우고 꿈꾸던 시절

청년기

뜨겁게 걸어온 시절

중년기

가장 치열했던 시절

장년기

깊어지고 무르익은 시절

지금, 이 시절

돌아보며 걷는 시절

쓰시는 방법이 넋입니다



직접 적기

손에 익은 대로



음성으로 말하기

말씀하시면 글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적기

곁에서 들으며



들려드리기

질문을 읽어 드립니다

진행 환경과 차시

기관에 있는 기기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어디까지 갈지에 따라 강좌 길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진행 환경

여권번호 하나면 어느 기기에서나 같은 자리로 들어옵니다. 강의실에서 하던 것을 집에서 이어 하고, 지난 회차를 다시 펼쳐 봅니다. 예습도 복습도 여기서 됩니다.



컴퓨터실 PC

전산실을 갖춘 기관은
단체로 한 번에



기관 태블릿

화면이 커서
어르신 손에 편합니다



참여자 휴대폰

쓰던 기기 그대로
강의실 밖에서도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함께 여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강좌에서는 기기 다루는 법을 익히며 진행하십니다. 화면을 커고 글자를 키우고 사진을 올리는 일이 그대로 실습이 됩니다.

정보화 교육과 관계·정서 교육 두 갈래로 사업을 세우실 수 있어 예산 편성의 폭이 넓어집니다.

강좌 길이

회차	어디까지 가는가
한 회차 엮기	지금 여시는 강좌 끝자락에 마음 여행지도 한 자리
8회차	마음 여행지도와 마음 여행편지까지
12회차	지도와 편지에 한 편의 기록 일곱 테마를 더해
20회차	기록을 천천히 짚어 가며 사진까지 함께 담는 긴 과정

다음 기수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을 마치면 다음 사람이 남습니다.
지난 여행은 여권번호 하나로 언제든지 다시 펼쳐집니다.

관계 우주

한 사람씩 더할 때마다 참여자의 **관계 우주**에 별이 하나씩 놓이고 완성도가 채워집니다.

다음 기수를 여는 명분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어머니를 했다면 이번 학기는 아버지입니다.



별이 쌓입니다

여행을 마칠 때마다
한 자리씩 채워집니다



여권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지난 여행을 다시 엽니다



기수를 잇습니다

다음 학기에 열 이유가
참여자 손에 있습니다

여행의 대상

떠올리는 사람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어머니와의 지도, 오래된 친구와의 지도가 서로 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연인

자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스승 · 은인

나 자신

그리운 누구

사랑흐름 여권 — 번호 하나로 계속 열립니다

참여자마다 여권번호가 하나씩 발급됩니다. 그 번호로 강의실에서도 집에서도, 이번 회차도 지난 학기 것도 같은 자리로 들어옵니다.

기수가 끝나도 여권은 참여자 손에 남고, 여행을 마칠 때마다 **관계흐름증명서**가 한 장씩 더해집니다.

관계는 완성이 아니라 —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운영 기관과 대상

무료로 여는 자리부터 정규 강좌까지, 기관 사정에 맞춰 고르십니다.

무료로 여는 자리

마음 한마디 · 무료

관계 나침반입니다. 「오늘, 당신의 관계를 통역해 드립니다」 — 맛보기 회차나 홍보 자리에 그대로 쓰십니다.

삐뚤삐뚤 마음 도화지 · 무료

손으로 한마디를 적습니다. 「잘 못 써도 괜찮아요, 삐뚤삐뚤한 게 진짜니까요」 — 첫 회차 몸풀이 자리입니다.

운영 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문화재단

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센터

요양원 · 주간보호

치매안심센터

농협 ·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학교 · 교육지원청

대상은 시니어 · 가족 · 부부 · 청소년 · 직원 연수까지 열립니다.

예산 항목

기존 프로그램을 밀어낼 것 없이 **새 항목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조합 교육 예산은 해마다 새로 짜입니다.

생활지도비

복지지원비

특색사업지원비

조합원교육비

프로그램운영비

평생학습사업비

정보화교육비

가족지원사업비

사업 근거

결재에 올릴 학술 근거와 사업 성격을 미리 갖춰 두었습니다.

학술적 뿌리

표현적 글쓰기 · Pennebaker

마음에 담아 둔 것을 글로 옮기는 행위가 심리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 편지와 기록 과정의 뿌리입니다.

존엄 치료 · Chochinov

자기 삶을 이야기로 남기는 일이 존엄과 삶의 의미에 닿는다는 임상 연구. 한 편의 기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족체계 이론 · Bowen

한 사람의 마음을 개인이 아니라 관계망 안에서 읽는 관점. 다섯 축 설계의 바탕입니다.

관계 상호작용 연구 · Gottman

오래 이어지는 관계에서 오가는 말과 반응을 관찰한 연구. 문항 구성에 반영했습니다.

사업 성격

자기이해 교육

상대를 묻기 전에 나의 감정 방식부터 짚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여행」이 이 과정의 첫 자리입니다.

세대소통 ·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의 글이 가족에게 건네집니다. 세대를 잇는 사업으로 그대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기기를 다루며 진행하므로 스마트기기 활용 강화와 함께 세우실 수 있습니다.

생애설계 · 정서지원

살아온 길을 정리하고 남기는 과정이라 생애설계 사업으로도 결이 맞습니다.

의료와 심리 상담을 대체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랑흐름은 관계를 판정하거나 치료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여자가 자기 마음을 글로 옮기도록 돕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 성격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기관 검토 단계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참여자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 가족과 강사, 기관과 운영자까지 닿습니다.

👤 교육생

- 자기 관계를 처음으로 말로 옮깁니다
- 미뤄 둔 한마디를 편지로 건넵니다
- 살아온 길이 한 편의 글로 남습니다
- 기기를 다루는 법도 함께 익힙니다

👨‍👩‍👦 가족

- 편지를 받는 자리가 생깁니다
- 부모의 이야기를 글로 간직합니다
-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냅니다
- 세대를 건너 남는 자료가 됩니다

🏠 강사

- 준비된 자료로 첫 회차부터 바로 섭니다
- 참여자 진행 상황이 회차마다 보입니다
- 결과물이 나오는 강좌를 말합니다
- 회차를 늘려 긴 과정도 여십니다

📁 발주 기관

복지관 · 평생학습관 · 조합 · 학교

- 사진과 만족도 외에 남는 성과가 생깁니다
- 참여 현황과 발급 목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 두 갈래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십니다
- 결재에 올릴 학술 근거가 갖춰져 있습니다
- 다음 해 편성 근거가 쌓입니다

👥 수행 기관 · 운영자

교육 납품 업체 · 위탁 운영 법인 · 강사단

- 기존 프로그램에 없는 방식이라 운영 틀도 강사비 편성도 그대로입니다
- 귀 기관 이름으로 기관에 제안하십니다 · 계약과 정산은 귀 기관 몫으로 남습니다
- 명단은 한 번에 등록하고, 인원이 늘어도 준비하는 손은 그대로입니다
- 결과물이 남는 프로그램이라 다음 공모와 재위탁에서 내세울 것이 생깁니다

참여자가 받는 결과물



표지 본문 · 유년기 사진이 담긴 자리

한 편의 기록은 이런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참여자가 말한 문장이 그대로 본문이 되고,
간직해 온 사진이 곁에 놓입니다.

함께하는 길

강사와 현장은 귀 기관 그대로. 필요한 것만 사랑흐름이 맡습니다.

방식	내용
콘텐츠 공급	귀 기관이 강사와 현장을 맡으시고, 사랑흐름이 시스템과 결과물을 공급합니다
강사 요청	사랑흐름이 맡은 자리에 강사가 필요할 때 귀 기관에 인력을 청합니다
공동 제안	기관 공모에 낼 구성안과 차시표, 결과물 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진행 순서

1	2	3	4	5
구성 협의	견적과 계약	사용 안내	운영	마무리
회차와 인원, 어디까지 갈지를 정합니다	정하신 구성으로 견적서를 드립니다	강사와 담당자에게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명단을 받아 열고, 회차마다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결과물 전달 · 발급 목록 제출

교육과정표 · 진행 지도안 · 학습자 활동지 · 결재 서류 등 행정 자료는 요청하시면 지원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와 보관

개인정보 수집	참여 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양식을 함께 드립니다
접수 사진 원본	작업을 마친 뒤 14일 안에 삭제합니다
여행지도 · 편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열람하십니다
한 편의 기록	완성 후 90일 동안 열람하십니다

참여자 결과물 예시

여행지도 · 편지 · 한 편의 기록을 실제 화면 그대로.
문의는 070-4158-7786 · hkpcgg@gmail.com

